

익산시, 예산 확보 총력

정현을 시장 연일 국회 방문, 사업 당위성 역설 전방위 지원 요청

정현을 시장이 내년도 국가 예산 최다 목표액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정 시장은 내년도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18일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판문'으로 통하는 예결위 예산 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간역·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2주가량 진행되는 소위심의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날 정 시장은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홍(기화재정위원회), 한병도(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전략을 논의한 데 이어 진선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을 시작으로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환노위 간사), 서삼석 의원(농해수위 간사)을 차례로 만나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힘을 실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기재부 예산실

의 수장 안도걸 예산실장을 찾아가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부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일반노조단지 진입 도로개설공사(남산~연무IC)(총사업비 1,874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3,500억원)의 내년도 사업 확보를 통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의원(위원장)과 안호영 의원(간사)을 만나 조속히 해결해야 할 환경치유사업인 ▲왕궁현역역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총사업비 1,468억원),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 사업(총사업비 340억원)의 사업 당위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송옥주 의원(위원장)을 통해 양수위원회 간사를 찾아가 식품생태계 융복합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

터 조성(총사업비 5,535억원), ▲스마트 농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총사업비 299억원)사업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시는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인력풀을 가동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각 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국가예산 당위성을 역설하며 관계부처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지역구 김수홍, 한병도 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로 20여개 중점사업(중액규모 약 900억원) 전체가 예결위 심의자료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현을 시장은 "정부 예산외와 상임위 심사에서 누락됐거나 감액된 각종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이 총선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익산시의 전북도, 지역정권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전쟁에 살아남아 반드시 사상 최대실적을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군산시,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군산시가 시내 곳곳에 산재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산시가 시내 곳곳에 산재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어린이공원은 주택지 등에 위치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공간 적정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범지역화 되거나 방치되어 가고 있었다.

민선 7기 들어 시민의 생활과 밀착된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물론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자연 속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NCC단체인 세이브 더칠드런과 민간 기부단체 펀드인 C-program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놀이 환경을 진단하고, 3개소에 대하여 시범개선을 진행했다. 또 2019년에는 문

체부의 목적역비비를 지원받아 5개소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사업, 생활밀착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을 통해 총 12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공원 내 동선 및 수목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인 군산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 푸드플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8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일 2강의씩 5주간 총 10회에 걸친 군산시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 푸드플랜의 공간대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실행 주체인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해 푸드플랜 선도지역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주체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군산시는 먹거리 계획 시행과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군산시 먹거리위원회'를 시민위원 25명을 포함한 4개 분과 43명으로 구성하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도서관 건립' 순항

도내 최초 한옥도서관 12월 개관, 공사 마무리 단계 등

익산시가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18일 규모 5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6억원 규모의 시립도서관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금마도서관(사업비 19억원)과 유천도서관(사업비 77억원) 건립, 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20억원) 사업 등이다.

도내 최초 한옥도서관인 금마도서관은 금마 고도지구 한옥아주단지에 연면적 543㎡,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다음달 개관을 목표로 내부 인테리어 등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북동부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도서관이 조성되면 문화 소외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도서관은 총사업비 20억원(국비 8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건물 증축을 포함한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착공해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개관 이후 17년이 경과된 영등도서관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정보문화 공간이었으나 자료실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증축을 통한 자료실 공간 확보와 내부 리모델링, 냉난방기, 엘리베이터 교체 등이 진행되며 공사를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임시휴관 중이다. 내년 상반기 재개관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천도서관은 총사업비 77억원(국비 30.8억원 시비 46.2억원)이 투입됐으며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부지 6,600㎡, 연면적 2,201㎡,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1월부터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천도서관은 인근에 위치한 유천생태공원과 연계해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 인증 등이 반영된 친환경 건축물이자 생태특화도서관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각 도서관의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지역 도서 인프라 확대는 물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 하림산업, '익산愛 주소 바로 갖기' 캠페인

익산시 경제관광국 소속 일자리정책과와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인구문제 동참을 위해 18일 (주)하림산업을 찾아 '익산愛 주소 바로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소 바로 갖기 운동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직원 1:1 밀착 홍보를 위하여 점심 시간에 맞춰 실시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하림산업 직원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며 인구증가 시책과 다양한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했으며 실제로 익산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익산愛 주소 바로 갖기'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다.

(주)하림산업 관계자는 '익산이 살아



익산시 경제관광국 소속 일자리정책과와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인구문제 동참을 위해 18일 (주)하림산업을 찾아 '익산愛 주소 바로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야 지역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익산愛 주소 바로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익산시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 155학군단, 2년 연속 최고등급 학군단 선정

군산대학교 제155학군단시교육단이 국방부 2020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 학군단에 선정됐다.

국방부는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향상·제도·예산·시설 등 학군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대 155학군단은 운영 제도와 후보생 자질, 우수 학생 육성, 교육시설, 교육활동 지원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작년 대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전 분야에 걸쳐 작년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주목받았다.

군산대 박정 학군단장은 "군산대학교 학군단이 2년 연속 최고등급 학군단에 선정된 것은 대학의 집폭적인 지원 아래 학군단원과 간부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면서 "훌륭한 장교 후보생을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